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동회로 모입니다.

오는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고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한국기독교연구소(소장:김준우 목사)가 주최하는 예수 포럼이 내일(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도법스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이번 달 원로모임은 이재문 권사님택에서 19일(수) 11시에 모입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십시오.

: 제5,6남선교회와 청년부, 중고등부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한강시민공원(이촌동)에서 축구시합을 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강화 농촌선교훈련원에서 재배한 무농약 절임 배추를 신청받습니다. 판매는 다음 주일(23일)에 합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를 만나서 밥 한끼 사십시오. 둘 다 행복할 것입니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힘을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먹구름처럼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십시오. 노아가 보았던 찬란한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종종 우리들의 마음은 길이 아닌 곳을 향해 달려 나가려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의 고삐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어 바른 길을 가게 하여주십시오. 주님을 등지고 욕망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크게 보는 눈을 고쳐주십시오. 어려운 이웃 앞에서도 움츠러들기만 하던 손이 활짝 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정길 최속화 김정섭 김준호 곽혜자 박병구 박창운 허정운 홍순구
안홍숙 김훈동 정한구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손성현 김순복
전영웅 왕성환 강순배 박은정 허신열 권미숙

월정헌금:

고속이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미순 김영순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전영자 이은자 이현순 박준규 서지영

감사헌금:

박병구 강미선 유동호 김혜은 이송희 정주하 곽상준 최경미 백성래
무명3

생일감사

김준우

녹색꿈헌금 :

한경숙 안종일 정현주 (누계: 5,716,000원)

	장혜숙	장혜숙	오송경	고속이
	노순옥	정경례	정경례	서정순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서원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박효선	홍복선
	최속화	권미정	최희정	이갑재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권명자	황선희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강미라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이영란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임창선

하늘을 날지 않는 이유

차츰 별빛이 스러지면서
새벽이 가까워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멀리 부지런한 오두막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어서 간간이 방울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린다

무거운 몸도, 배낭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즐겁고 경쾌한 걸음을 표현할 적당한 어휘가 무엇일까

사람이 하늘을 날지 않는 것은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길을 더 즐기려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에밀 자벨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거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손안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탐스러워 보여도 주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늘 새로운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1월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경	기도 / 조항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권아주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김진경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홍순구 박규석 안정숙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두 바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에 나오는 인관印觀과 서조署調의 이야기가 오래 두고 생각난다. 기록은 이렇다.

신라 때의 일이다. 인관은 시장에서 숨을 팔고 있었다. 서조가 곡식으로 숨을 사서 돌아오는데, 술개가 느닷없이 숨을 채가서는 인관의 집에 떨어졌다. 인관은 숨을 가지고 시장으로 와서 서조에게 말했다.

“술개가 네 숨을 우리 집에 떨어졌으니 네게 돌려준다.”

서조가 대답했다.

“아니다. 술개가 숨을 채가서 네게 주었으니, 내가 어찌 받겠는가?”

“그렇다면 나도 네 곡식을 받을 수 없다. 도로 가져가라.”

“내가 네게 주고 산 지가 이틀이나 되었다. 곡식은 이미 네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옥식각신하던 두 사람은 숨과 곡식을 시장에 버려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버렸다.

시장을 맡은 관리가 임금에게 이 일을 아뢰었다. 임금은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다.

고려 말에나 들어왔다는 숨을 신라 때 시장에서 팔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술개가 숨을 채가서 하필 인관의 집에 떨어졌다는 것도 우습다. 또 그랬으면 그랬지. 인관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달려가 서조에게 돌려주려 했고, 서조는 술개가 숨을 채가서 네 집에 떨어진 것은 이미 하늘의 뜻인데 어찌 돌려받겠느냐고 펄쩍 뛰었다. 이틀이나 지나 그를 찾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전부터 한 동네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분명하다.

숨이 아깝고, 곡식이 귀한 줄이야 왜 몰랐겠는가? 인관은 곡식 받고 관 숨이 되돌아왔으니 황재한 것이고, 서조는 곡식 주고 산 숨을 잃었으

니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인관은 생각지 않은 재물이 난감했고, 서조는 뜻하지 않게 되돌아온 재물이 불편했다. 그래서 두 바보는 결국 숨과 곡식을 다 내버리고, 서로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택했다.

사관史官은 기록 끝에 이런 해피엔딩을 덧붙였다. 이들의 멍청한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에게 금세 퍼졌다. 관리는 이 일을 위에 보고했고, 임금은 아름답게 여겨 두 사람을 불러 벼슬을 주었다.

두 바보의 어처구니없는 고집에다 임금의 호들갑까지 보태지고서야 이 소동은 마무리되었다. 그때는 임금도 참 심심했던 모양이거나 싫기도 하고, 사관도 신문 사회면 미담 기사에나 나올법한 시시한 이야기를 무슨 생각으로 역사책에 버젓이 실었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이 앞뒤도 잘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자꾸 내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으니 나도 그 까닭을 잘 모르겠다. 술개가 숨을 물어왔는데, 누가 알 것인가? 다음번에 다시 시장에 내다 팔면 돈이 생기고 양식이 생긴다. 또 숨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두말없이 받았어야 옳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별 게 없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었다. 술개가 낚아채갔으니 하늘의 뜻이려니 했고, 곡식 받고 관 것이 되돌아왔으니 흠치기라도 한 것처럼 꺼림칙했다. 그래서 둘 다 갖지 않고 내다 버림으로써 가슴에 얹힌 돌덩이를 시원스레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혹시 내 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밤에 잠도 못 잔다. 재물을 쌓아두고도 더 갖지 못해 불안하고, 다 갖지 못해 안달을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고는, 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노심초사한다. 그들은 물질을 손에 넣는 대신 지옥을 마음에 담는다. 나눌 줄 모르는 풍요는 탐욕이다. 탐욕은 늘 재앙을 부른다. 숨과 곡식을 시장에 툭 던져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위허위 돌아가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생각난다.

-정민, 「스승의 옥편」 중에서